

도전과 혁신, 화합의 울산 · 경남도회

울산 · 경남도회 김원열 회장

전국 시 · 도회는 지난 해 개최된 총회를 통해 제9대 시 · 도회장을 새롭게 구성하고 각 지역의 기계설비건설업계 및 협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 · 도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듣는 코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김원열 회장으로부터 울산 · 경남도회의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들었다. 도전과 혁신을 주문하며 진취적인 열정이 여름날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김원열 회장 [무경설비(주) 대표]은 광범위한 지역인만큼 회원사 소통은 물론 경쟁력 제고와 기계설비건설업계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편집자 주]



제9대 회장으로서는 지난 1년간의 활동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으로 지난해 제9대 회장에 취임하여 제9대 집행부를 구성하고 향후 3년간 추진할 사업방향 마련 및 활동계획 수립과 함께 여러가지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등 매우 분주하게 일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욕만큼 큰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회원사의 권익신장 및 유대강화와 협회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저와 제9대 집행부에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장이 되기 전에는 심층적으로 몰랐었는데 우리업계의 열악한 환경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매출이 큰 회사의 규모는 아주 큰 반면, 10억원 미만 업체가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한 실정입니다. 또한 경남지역은 건축설비 위주이고, 울산지역은 플랜트 위주이며 기계설비 매출이 건설, 전문업체보다 큼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회원사들 간 화합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원사의 욕구 또한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투명한 협회 운영으로 우리업계의 권익신장과 업역확대, 회원간의 단합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해 개최된 해외문화 탐방과 지난 4월에 개최된 총회에 협회 역사상 최다 인원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것은 제9대 집행부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하기에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역대 회장님들이 일궈놓은 협회 운영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업계 및 협회가 한단계 도

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첫째, 지역 회원사 순회간담회 및 권역별 협의회 활성화

울산·경남도회는 지역이 매우 광활하여 회원사가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하 시·군별로 순회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계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면서 회원 간 단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의 사업추진 현황 및 각종 정보를 지역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지역별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재홍 전임 회장님께서서는 오랜 기간 협회를 이끌면서 흔들렸던 조직을 안정화 시키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특히 지역별 친목협의체인 △울산협의회(울산권) △경남중부협의회(마산·창원·진해 중심) △경남서부협의회(진주·사천·삼천포·하동 중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회원사의 의견 수렴 및 소통의 창구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저 역시 전임 회장님의 뜻을 계승·발전시키고 회원사와의 소통을 위해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기관장 간담회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등 각종 사회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업계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발주기관과 지역 회원사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중개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지역 회원사 수주물량 확대

울산 · 경남도회는 경남도 및 울산시 등과 합동으로 '민 · 관 합동 하도급 실태조사 · 세일즈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역 대형 건설현장을 방문해 하도급 실태조사를 펼치는 한편 우리지역의 대형공사 하도급 참여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요청과 함께 홍보자료 배포 등 하도급 세일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3군 종합건설업체에 우리지역 회원사의 우수 협력업체 추천 및 등록지원, 그리고 민간 발주처에도 우리지역 회원사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외 홍보활동과 더불어 전문건설협회 등 타 건설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도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수주여건 개선

울산 · 경남도회는 지난해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도 원인이지만 더 큰 원인은 울산지역 플랜트 수주물량 감소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회원사 스스로 텀핑수주 자제는 물론 시공품질 강화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성실시공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울산 · 경남도회는 '공사비 제값 받고 성실시공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적정공사비가 확보되는 수주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발주기관에서 공사비를 지나치게 낮게 발주하는 사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공사비 부당삭감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회원사와 건설노조의 노사문제 해결지원 및 회원 권익보호

울산 · 경남지역은 플랜트건설노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노사(勞使)는 현대 기업경영의 쌍두마차입니다. 특히 건설은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끝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勞)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플랜트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공단협의회를 만들어 노사의 상생 및 생산성 향상 등 동반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울산 · 경남도회에서 기계설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회원사 및 플랜트건설노조와의 노사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사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해 업계의 정당성 및 애로사항 홍보와 더불어 해당 회원사들이 건설노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정보교류 및 노무관리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찾아가는 민원 · 건설정보 서비스 확대

울산 · 경남도회는 회원사 업무지원의 일환으로 임직원 대상의 입찰 및 실적신고 강습회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업무가 능숙하지 못한 회원사 임직원들을 위해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와 중요 공지사항을 회원사에게 문자로 알리는 '건설정보 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입찰공고 및 법령 · 제도, 발주계획 등 건설관련 각종 정보를 회원사에게 신속히 제공하는 건설정보서비스 확대 등 회원봉사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울산 · 경남지역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업무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 경남도회 사무처 직원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하삼식 팀장, 김민경 대리, 김봉규 처장, 정해진 직원 · 울산 사무소 권영민 차장, 김봉규 처장, 안은희 직원)

여섯째, 기계설비건설업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그동안 우리 기계설비건설 분야는 건축, 주택, 도로, 교량 등의 건설을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약한 분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기계설비건설업도 건축 · 토목과 함께 건설분야의 발전을 리드하는 한 축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우리의 몫 또한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또한 협회의 존재가치와 활동상황을 적극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 언론사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우리업계의 위상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회원사에 당부말씀

울산 · 경남지역 기계설비건설업계는 공공 및 플랜트 물량 축소로 매우 어려운 시절을 맞


고 있으며, 특히 지역 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 상황으로 볼 때 올해도 극심한 수주물량난과 자금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점점 열악해지고 수주영역도 좁아지는 건설환경에서 그대로 안주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무대를 전국으로, 또 해외로 더 넓은 시장에 뛰어들어 활발한 활동을 하는 등 우리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면돌파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를 스스로 불태우며 길을 찾고 정면돌파를 통해 사업을 성장시켜왔습니다. 든든한 배경도 없고, 학연도 부족한 제가 맨손으로 설립한 무경설비를 1천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시키기까지는 남들보다 두 · 세배 노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성공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에 앉아있기 보다는 현장을 직접 가

서 보면 리더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실패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별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회원 상호 간 화합을 이루어 내지 못하면 자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가오는 기회를 잡기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원들 간의 화합을 헤치고 경영을 악화시키는 덤핑수주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회원 여러분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회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울산 · 경남지역의 기계설비공사 원 · 하도급 수주물량 확대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수주여건을 개선하고,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별협의회 활성화, 그리고 회원 간의 단합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업계와 협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고견을 언제든지 들려주시고 격의 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김원열 회장은

- 1962년생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 CEO포럼과정 수료
- 현대중공업 근무
- 윤일건설(주) 울산지사장
- 무경설비(주) 설립, 대표이사(現)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울산 · 양산지역 중구지구 부회장(現)
- 대한설비건설협회 본회 이사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건설활성화협의회 위원
- 現. 대한설비건설협회 울산 · 경남도회 제9대 회장
- 現. 울산광역시 건설발전위원회 위원
- 現. 경상남도 건설발전위원회 위원
- 울산광역시장 표창(울산시발전기여)
- 울산광역시장 표창(법무보호복지사업)
-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청소년범죄예방활동)
- 대한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장 공로패(공사실적 최우수)